

唐 曆 考

谷 口 明 夫*

1. 序 言

柳芳은 唐代의 歷史學者이다. 玄宗, 肅宗, 代宗, 德宗의 4대에 걸쳐 史館에 任職하였고, 著書에는 永泰新譜 20卷, 唐曆 40卷, 大唐宰相表 3卷, 唐書敍例目 1卷 및 吳兢과 韋述을 계승하여 완성한 高祖로부터 肅宗 乾元 年間に 이르는 國史 130卷이 있다. 그는 劉知幾, 吳兢, 杜佑와 같이 후세에 중시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姚思廉, 李延壽, 令狐德棻과 같이 사람들에게 언급되지도 않았지만 그가 韋述등과 함께 저작한 國史 130卷은 藍本이 되어 거의 전부 舊唐書의 前半部에 들어가게 되었다. 新唐書와 資治通鑑을 편찬할 때에 역시 唐曆 중의 대부분이 채용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唐代 史學者 중에서 이와 같이 위대한 업적을 가진 그에 대해 마땅히 매우 높은 평가를 해야 할 것이다.

이하 柳芳의 史學에 대해 주로 唐曆의 編纂經緯와 그 具體的인 내용을 묘사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기로 한다.

2. 唐曆撰述의 經過와 記錄의 期間

舊唐書 卷149 柳登傳에는 唐曆編纂의 經緯를 記錄하고 있다. 후세의 사료가 모두 이에 의거하고 있으므로 아래에 그 원문을 게재해 보기로 한다.

* 日本 鹿兒島大 교수

父芳，肅宗朝史官，與同職韋述受詔添修吳兢所撰國史，殺青未竟而述亡，芳緒述凡例，勒成國史一百三十卷。上自高祖，下至乾元，而敘天寶後事，絕無倫類，取捨非工，不爲史氏所稱。然芳勤於記註，含毫罔倦，屬安史亂離，國史散落，編綴所聞，率多闕漏。上元中坐事徙黔中，遇內官高力士亦貶巫州，遇諸途。芳以所擬禁中事，告於力士。力士說開元天寶中時政事，芳隨口志之。又以國史已成，經於奏御，不可復改，乃別撰唐曆四十卷，以力士所傳載於年曆之下。

이상과 같이 柳芳은 肅宗시대에 韋述이 죽은 후 吳兢이 찬술한 國史를 계속 添修하여 모두 130권을 이루었다. 단 天寶 이후의 기술에 관해서는 사료의 수집이 쉽지 않아 闕漏한 바가 많았기 때문에 史家들이 칭찬하지 않았다. 上元 년간 柳芳이 죄로 인해 黔中으로 放逐되었는데 도중에서 巫州로 放逐되어 가는 高力士와 우연히 만나 高力士로부터 開元, 天寶 년간의 정치에 관한 많은 것을 들었다. 그러나 그때 國史는 이미 朝廷에 上呈되어 있어서 다시 고칠 수 없었으므로 柳芳은 다시 高力士가 말한 것을 근거로 하여 唐曆 40권을 썼다.

그 밖에 新唐曆 권132 柳芳傳 중에는 舊唐書에서 말한 것 이외에 唐曆이 編年體 史書라는 것과 그 중에 褒貶義例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학자들의 비평을 받았던 것을 기록하고 있다.

時國史已送官，不可追刊，乃推衍義類，倣編年法，爲唐曆四十篇，頗有異聞。然不立褒貶義例，爲諸儒譏訕。

卷數 40권에 대해서는 異論이 없지만 그 중 기재된 기간의 下限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다르다. 대체로 두 종류의 說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하 이를 설명해 보면,

新唐書 권133 蔣偕傳에는

初，柳芳作唐曆，大曆以後闕而不錄，宣宗詔崔龜從·韋澳·李荀·張彥遠及偕等分年撰次，盡元和以續云。

라고 하고 있고, 玉海 권47 編年 唐曆, 續唐書條에 인용된 中興書目

에는

柳芳撰唐曆，起隋義寧元年，盡大曆十三年八月，初芳次國史，興高祖訖乾元，凡百三十編，敘天寶後事，棄取不倫，(이후는 本傳과 같다) 後崔鉉續修之，未就。宣宗大中間，命崔龜從大曆十三年春，盡元和十五年，凡二十二卷。

라고 하고 있는데, 이상 2가지의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柳芳이撰한 唐曆은 단지 隋 義寧 元年(617)에서 大曆 13년(778) 8월까지만을 다루었다. 大曆 13년 봄으로부터 元和 15년(820)까지의 역사가처는 崔龜從 등이 柳芳의 唐曆의 뒤를 이어 續唐曆을 완성하였던 것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通志 藝文略의 史類編年部에는 唐曆을 著錄하고

唐柳芳撰，起隋義寧元年，訖建中三年。

라고 하여 唐曆이 617년에서 782년의 역사를 기록하였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郡齊讀書志 卷2 上 編年類의 唐曆條에는 우선 먼저 新·舊唐書에 의거하여 成書의 經緯를 설명하고 이어서 778년까지 기재하고 있다는 것과 제도에 대한 서술이 매우 상세하다는 것을 지적하였는데

起隋義寧元年，迄大曆十三年，然不立褒貶義例而敘制度詳。

라는 것이 그것이다. 直齊書錄解題는 郡齊讀書志와 같이 唐曆이 617년에서 778년까지라고 하고 있다.

高似孫은 史略 卷3 唐曆條에서 成書의 경과를 서술한 후

按唐曆起隋義寧元年，訖建中三年。

라고 하였는데 通志의 기록과 같다. 通志, 史略과 新唐書, 玉海, 郡齊讀書志, 直齊書錄解題 등에서 말한 記載의 下限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일 것이다. 文獻通考 卷193에 인용된 李燾의 말에는

(前略) 按劉恕謂芳始爲此書，未成而先傳，故世多異本。今此篇首注起隋義寧元年，訖建中三年，凡百八十五年，而所載乃絕於大曆*十四年。資治通鑑往往以唐曆*辨證牴牾，見於考異者無慮百十餘，而此皆無之，其脫亡又不止此也。疑此即恕

所謂未成而先傳者，或後人抄略芳書，故不得其全。尚遂零落至此，亦可惜也。今以唐諸書校謬誤，頗加是正，其文或不可知，并事應有而無者，皆列卷末，更俟考求。（*原文에 따름）

라고 되어 있다. 馬端臨이 인용한 李燾의 이 같은 출처를 알 수 없다. 그러나 이를 근거로 한다면 李燾는 唐曆을 갖고 있었으며, 그것을 通鑑考異가 인용한 唐曆과 비교하고 또 唐代의 諸史料와 對證하여 錯誤를 바로 잡아 唐曆의 校補本 혹은 輯本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단 李燾가 참조한 唐曆은 매우 불완전하였을 것이다. 비록 卷首에 隋 義寧 元年에서 建中 3년까지의 역사를 기록했다고 되어 있을지라도, 실제로는 大曆 14년까지만 기재되어 있었을 것이며 그 중에는 通鑑考異가 인용한 唐曆의 문장도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그는 唐曆이 완성되기도 전에 세상에 전해진 異本이 매우 많다 라는 劉恕의 말이 의거하여 자기가 가지고 있는 唐曆이 미완성의 唐曆이라고 생각하였거나 혹은 後人이 轉寫할 때에 생략되어진 唐曆이라고 생각하였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劉恕의 말이다. 劉恕는 司馬光이 通鑑을 편집할 때에 가장 신뢰받았던 조수였으며 또한 때 왕조 역사에 정통한 학자였다. 비록 그가 직접 唐朝 부분의 편집을 담당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분명 唐曆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몇 종류의 抄本을 읽은 후에 위와 같은 사정을 서술하였을 것이다. 만약 그리하다면, 여러 종류의 唐曆이 존재하였다는 사실이 위와 같은 불일치를 낳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柳芳이 저작한 唐曆이 建中 3년까지 쓰여졌으나 후에 그 중 일부분이 없어져 완전치 못하게 되었는지 혹은 본래 建中 3년의 역사까지 쓰려고 계획만 했는지는 난정할 수 없지만 적어도 大曆 13년 8월 이후는 완전하게 쓰여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唐曆은 형식상으로는 建中 3년까지 기재한 編年史이지만 唐 宣宗시대에 이르면 이미 大曆 13년 8월까지의 역사만이 남게 되었다.

唐曆의 成書 연대는 자세하지 않지만, 唐會要 卷36 氏族, 乾元 元年

條에 의하면

貞元中，左司郎中柳芳論氏族，序四姓，則分甲乙丙丁，頒之四海。世族則先山東，載在唐曆。

이라 하여 柳芳이 貞元 年間(785~804)에 저록한 문장이 唐曆에 들어갔음을 알 수 있다. 이로 부터 貞元 初에도 柳芳이 계속해서 唐曆을 찬술했음을 알 수 있는데 그가 上元 중에 放逐되어 새로운 編年體 史書의 저술을 결정하였을 때부터 계산하면 소비된 시간이 20년 이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唐曆의 書寫形式, 撰述態度 및 그 내용

唐曆은 編年體 史書이다. 高似孫은 앞서 인용한 史略의 글 뒤에

又按前史有吳曆六卷，胡冲撰晉曆二卷，陳曆二卷，唐曆蓋因之乎。

라 하여 唐曆이 吳曆, 晉曆, 陳曆 등 史書의 형식을 채용하여 썼음을 지적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史書들이 현재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도대체 어떠한 종류의 방식을 계승했는지는 알 수 없다.

唐曆의 書寫형식은 實錄과 유사한 編年體이며 列傳이 있는 것도 유사하다. 또한 前記한 郡齋讀書志 卷2上에는 唐曆 중 제도에 관한 기재가 매우 상세하며 志에 속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고 하고 있다.¹⁾ 前記한 唐會要 卷36 氏族條에는 氏族을 논하면서 四姓에 序했던 문장인 姓系論이 唐曆 중에 들어가 있다고 하고 있다. 柳芳 역시 永泰 2년에 皇室 永泰譜 20권을 저술하였던 매우 우수한 系譜學者이었으므로 姓系論이 唐曆 중에 들어가게 된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다.²⁾ 資治通鑑考異

1) 太田晶二郎, 「唐曆について」(『山田孝雄追悼史學語學論集』 1962년)에 수록된 佚文 15 및 注23 참조.

2) 姓系論은 新唐書 卷199 柳冲傳에 節略되어 들어가 있어 그 대략적인 내용을 알 수 있다.

에 인용한 唐曆은 매우 많은 官府의 설치와 州縣의 廢置를 기재하고 있어 晁公武의 말이 정확함을 보여주고 있다.

唐曆을 찬술하게 된 동기에는 3가지가 있었다. 첫째는 吳兢의 國史를 添修하여 완성한 國史 130권 중 天寶 이후의 부분이 잘 쓰여지지 못해 학자들의 악평을 받고 있었던 것이며 둘째는 安史의 난 이후 國史의 散佚이 매우 심해졌다는 것 셋째는 上元년간 高力士로부터 開元, 天寶 년간의 정치사정을 얻어 들었던 것이다. 따라서 표면상 唐曆 찬술의 중점목적이 天寶 이후의 역사를 쓰려고 했던 것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舊唐書가 韋述, 柳芳이 저작한 國史를 藍本으로 하여 이루어졌던 사실은 이미 前人들이 지적하였지만, 柳芳 唐書의 원형을 보존하고 있는 舊唐書와 唐曆은 단지 開元, 天寶 사이의 기재가 같지 않을 뿐 아니라 開元, 天寶 이전의 기재도 다른 것이 많다.

唐曆이 이미 散佚되어 현재 티록 완전한 책을 볼 수는 없지만 資治通鑑考異(이하 考異로 略稱함) 중에는 많은 인용문이 있어 대략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필 수 있다. 이하 필자는 考異가 인용한 唐曆의 佚文과 新舊 兩唐書, 諸 實錄의 비교결과를 통해 唐曆과 기타 사료의 관계 및 柳芳이 唐曆을 찬술한 태도를 논해 보기로 한다.

考異 중에 인용된 唐曆은 모두 175조이지만 同一條에 두번 唐曆을 인용한 것도 있으므로 인용된 唐曆은 총 188개이다. 考異가 唐史 史料를 인용한 것 중 唐曆은 諸 實錄, 新舊 兩唐書의 次數보다 적게 인용되었다. 188개 중 採用된 것은 81개, 并記된 것은 81개, 否定된 것은 26개야

		高祖	太宗	高宗	則宗	中宗	睿宗	玄宗	肅宗	代宗
採	用	5	8	4	12	3	0	32	11	6
并	記	5	5	9	8	2	0	39	9	4
否	定	3	0	4	2	2	0	11	1	3
總	數	13	13	7	22	7	0	82	21	13

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 通鑑이 唐曆을 충분히 이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각 朝代別로 본 결과는 위의 표와 같다.

이로부터 玄宗, 肅宗 兩朝의 採用이 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이 兩朝의 기록이 다른 시기에 비해 상세할 뿐만 아니라 唐曆 편찬의 주요 동기가 開元, 天寶 이후의 역사기재를 수정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설이 거짓이 아니었음을 증명해 주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玄宗朝 이전의 부분도 상당히 많이 인용되고 있어 柳芳이 전체 역사기재를 수정하려 했음을 알 수 있다.

考異가 인용한 唐曆과 唐書本紀의 비교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이 표는 日期와 日期 이외의 내용을 本紀와 비교한 것이다.

日 期

		高祖	太宗	高宗	則宗	中宗	睿宗	玄宗	肅宗	代宗	計
唐 曆	同	3	1	1	1	0	0	19	2	1	28
	異	1	1	0	3	1	0	12	1	2	21

一般內容

		高祖	太宗	高宗	則宗	中宗	睿宗	玄宗	肅宗	代宗	計
唐 曆	同	1	1	0	1	1	0	3	3	1	11
	異	1	0	1	3	0	0	5	3	0	13

考異는 본래 諸史料간에 異同이 있을 때에만 기재하였기 때문에 高祖에서 睿宗까지 唐曆과 本紀 사이의 異同을 기록한 考異가 매우 적은 것은 兩書의 記事量에 차이가 있지만 兩書 기재의 日期와 내용은 거의 일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前人이 이미 지적했듯이 舊唐書 전반부에 受納된 國史는 吳兢, 韋述, 柳芳 등이 저작한 唐書 130권이다. 자세하게 보면 舊唐書는 後晉에서 편찬할 때에 改修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특별히 크게 改修한 부분은 없다. 이에 의거하여 唐曆과 舊唐書 本紀를 서로 대조해 보면, 玄宗朝의 기재 이외에는 兩書 사이에 거의 차이가 없을 뿐 아니라 日期의 경우에는 똑같이 誤記하고 있다.

따라서 柳芳은 唐曆을 편찬할 때에 그의 唐書 130권 중 本紀에서 사용한 日曆을 이용했고 기타 내용 역시 기본적으로는 그의 唐書에 기초하여 썼다고 할 수 있다. 唐曆 편찬의 동기가 高力士로부터 얻은 정보를 근거로 하여 開元, 天寶년 간의 역사를 改寫하려 했던 것이었으므로 舊唐書 玄宗期 및 唐曆 사이에 이등이 많은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다. 唐曆은 대체적으로 먼저 成書된 國史 즉 唐書 130권을 기초사료로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玄宗朝 이전의 기술에서도 결코 완전히 같지 않다는 것은 唐曆이 開元, 天寶년 간의 역사를 改寫하였을 뿐 아니라 동시에 그 이전의 역사도 改寫하였음을 말해 주고 있다. 唐曆과 舊唐書 列傳 사이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高祖	太宗	高宗	則宗	中宗	睿宗	玄宗	肅宗	代宗	計
唐曆	同	5	0	2	1	1	0	4	3	1	17
	異	2	6	3	8	2	0	21	4	1	47

풀리블랭크(Pulleyblank)선생은 舊唐書 권53에서 권106까지의 列傳이 모두 柳芳의 唐書 130권에서 취해졌다고 하고 있다.³⁾ 만약 그러하다면 권53에서 권106의 列傳기사와 唐曆의 기재가 위의 표와 같이 같지 않은 것은 唐曆이 玄宗朝 이전의 역사에 대해 먼저 완성된 唐書의 列傳에만 의거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改修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柳芳은 玄宗時의 역사를 改寫하였을 뿐 아니라 玄宗 이전의 역사도 改寫하였던 것이다. 柳芳은 吳兢, 韋述의 國史를 添修하여 唐書 130권을 撰成하였으므로 吳兢 등이 찬술한 부분을 改修할 수 없었는데

3) E.G. Pulleyblank, The Tzzyjyh Tongjiann Kaoyih and The Sources for the History of the Period 730~763 (Bulletin of the 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 University of London, Vol. VIII, Part 2, 1950, pp. 448-473).

바로 이 때문에 그는 唐書 130권 중 開元 이전의 부분에 대해서 매우 많은 불만을 품었을 것이다. 따라서 그는 開元, 天寶 이후 역사기재의 착오를 개정하려 하였을 뿐 아니라 역사학자로서 그는 충실히 唐 一代의 역사를 기술하여 一家之言을 이루고자 하였던 것이다.

저술에 대해 이러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의 독자적인 판단아래 사료를 선택하였다. 이러한 찬술태도는 實錄과의 관계표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日 期

		高祖	太宗	高宗	則宗	中宗	睿宗	太上皇	玄宗	肅宗	代宗	計
唐 曆	同	0	3	0	2	1	1	1	3	2	0	13
	異	3	1	2	7	0	1	1	27	4	7	53

一般內容

		同	異	同	異	同	異	同	異	同	異	計
唐 曆	同	1	4	1	1	2	0	0	4	3	1	17
	異	2	2	7	7	2	0	0	11	8	3	42

實錄은 唐 國史 찬수시의 기본사료였지만 唐曆 중에는 實錄과는 상이한 기사를 많이 기재하고 있다. 이는 柳芳이 實錄 이외에 많은 사료를 참고했음을 의미한다.

요컨대 柳芳은 唐曆을 찬술할 때에 唐書 130권을 기초자료로 하여 玄宗, 肅宗 兩代의 많은 내용을 改修하였고 그 이전의 역사는 實錄과 實錄 이외의 사료에 의거하여 자기 판단으로 改修하였으므로 결코 단지 唐書 130권을 編年體史書로 개편한 것으로만 볼 수 없다.

이상은 唐曆과 기타 사료의 비교결과를 개괄적으로 서술한 것이다. 이어 唐曆의 특이성, 구체적으로는 柳芳이 武則天을 서술할 때의 특별한 태도를 간략히 서술하고자 한다. 考異 권10 (永徽六年七月)「帝欲以 武昭儀爲宸妃, 韓瑗・來濟諫」條에는

唐曆在此年四月。今據實錄，四月，韓瑗・來濟未爲侍中・中書令。唐曆又云，璽濟諫，帝不從。按立武后詔書，猶云昭儀武氏。然則未嘗爲宸妃也。今從會要。

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高宗이 武昭儀(즉 武則天)를 세워 宸妃로 삼으려고 하였을 때에 韓瑗 및 來濟가 반대한 사건에 대한 考異이다. 문제의 소재는 이 일이 발생한 시일과 그 成否에 있다. 이하 考異 중 명료하지 않은 부분을 보충하면서 상세한 상황을 해설해 보기로 한다.

唐曆의 대략적인 내용은 4월에 武昭儀를 세워 宸妃로 삼자는 의론이 일어났으며 韓瑗 및 來濟가 반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昭儀를 宸妃로 삼았다는 것이다. 司馬光은 韓瑗과 來濟가 侍中, 中書令으로 승진한 것은 5월 壬辰의 일이며 4월에는 아직 侍中, 中書令이 되지 않았었으므로 武昭儀를 세워 宸妃로 삼자는 의론에 그들이 반대할 수 없었다 하여 이에 唐曆이 말한 4월이라는 시기를 부정하고 있다. 이 판단은 매우 정확한 것이라 생각된다.

武昭儀가 宸妃에 올랐는지의 여부에 관해서는 立武后詔書의 「昭儀武氏」라는 말에서 武則天이 宸妃에 오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唐會要 중에도 韓瑗과 來濟가 諫言하여 立妃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司馬光이 唐會要의 글을 채용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司馬光의 설명은 충분하지는 않다. 필자는 司馬光이 考異의 내용을 간결하게 하기 위하여 일부러 그 밖의 사료를 인용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이를 간단히 소개해 보도록 한다.

舊唐書 高宗紀에는 武昭儀가 宸妃에 올랐다는 사실을 기록하지 않고 단지

(永徽六年) 冬十月己酉……立武昭儀武氏爲皇后，大赦天下。

라고만 하여 武則天이 宸妃에 오른 일이 없다고 하고 있다. 新唐書 高宗紀에는 비록 宸妃에 오른 일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永徽六年十月) 乙卯，立宸妃武氏爲皇后

라 하여 武昭儀가 宸妃에 올랐다고 하고 있다. 또한 新·舊唐書 則天武后紀에는 모두 武氏가 宸妃에 오른 이후에 皇后가 되었다고 하고 있다. 즉 오직 舊唐書 高宗紀만이 武氏가 宸妃에 오르지 못했다고 하고 있을 뿐 기타 사료는 모두 唐曆이 말한 바와 같이 비록 韓瑗과 來濟가 반대하였으나 武昭儀는 宸妃에 올랐다고 하고 있는 것이다.

舊唐書 高宗紀와 則天紀의 내용이 다르다는 것은 이들 부분의 撰者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唐曆과 舊唐書 高宗紀가 다른 것은 柳芳이 唐曆을 찬할 때에 吳兢, 韋述이 찬한 國史의 高宗紀에 의거하지 않고 독자적인 판단으로 改寫하였거나 혹은 舊唐書 則天紀(國史 130권 중의 則天紀라 할 수 있음)에 의거하여 썼기 때문이며 또 新唐書 高宗紀가 舊唐書 高宗紀의 「昭儀武氏」를 「宸妃武氏」라고 고친 것은 唐曆의 기재 혹은 舊唐書 則天紀에 의거하여 改寫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新·舊唐書 韓瑗傳 모두 宸妃를 세우는 일에 관해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來濟傳 중에는 宸妃를 세우는 일에 대해 반대하였던 것은 언급하고 있으나 그 결과에 대해서는 찬술하고 있지 않다. 이외에 舊唐書 長孫無忌傳, 褚遂良傳 역시 宸妃사건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王后를 폐하고 武氏를 세워 后로 삼았을 때에 「立昭儀武氏爲皇后」라 기록하고 「宸妃武氏」라 하지 않아 武氏가 宸妃에 오르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柳芳은 비록 國史 130권 중의 高宗紀에 의거하여 唐曆을 찬술하였지만 宸妃를 세우는 일에 관해서는 國史 중의 則天紀의 기재에 의거하고 國史列傳의 기재를 무시하였던 것이다.

唐曆보다 앞서 완성된 高宗實錄과 舊唐書 高宗紀(國史 130권 중의 高宗紀라 할 수 있음)는 武氏가 宸妃에 오른 일을 기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확실히 이러한 일이 없었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唐曆은 高宗이 韓瑗 등의 諫言을 듣지 않고 武氏를 宸妃로 삼았다고 하고 있는데 이는 唐曆이 관례를 깨고 宸妃에 오른 일을 역사사실로서 기술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武則天이 차례차례 자기의 야심을 실현시켜 갔던 인물임을 깨달

게 하려 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考異 권10 「(麟德元年) 十二月武后預政, 中外謂之二聖」條에는

唐曆, 群臣朝謁, 萬方表奏, 皆呼爲二聖. 帝坐于東間, 后坐于西間. 后隨其愛憎, 生殺在口. 按武后雖悍戾, 豈得高宗尚在, 與高宗對坐, 受群臣朝謁乎. 恐不至此. 今從實錄.

이라 하고 있다. 이것은 武后參政 이후의 묘사에 관한 考異이다.

唐曆은 高宗이 東間에 앉고 武后가 西間에 앉아 群臣의 朝謁을 받았으며 武后는 그 개인의 愛憎에 따라 臣民의 生死를 결정하였다고 하여 武氏가 大權을 가지고 있었을 뿐 아니라 매우 포악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高宗實錄 중에는 비록 武后가 막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 天子라도 어찌할 수 없었다고 하고 있기는 하나 武后도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직접 聽政하지는 않고 垂簾聽政하였다고 하여 비교적 완곡하게 기술하고 있다. 通鑑 본문에는

自是上每視事, 則后垂簾於後, 政無大小, 皆與聞之. 天下大權, 悉歸中宮, 黜陟殺生, 決於其口. 天子拱手而已. 中外謂之二聖.

이라 되어 있듯이 司馬光은 高宗의 在世時에는 武后가 高宗과 併坐하여 群臣의 謁拜를 받을 수 없었을 것이라 생각하고 實錄의 기재를 채용하였는데 이는 매우 정확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唐曆과 高宗實錄의 표현을 대조해 보면 唐曆이 묘사한 武后는 高宗實錄이 묘사한 武后에 비해 훨씬 暴惡無恥하다. 아마 柳芳이 唐曆을 찬술할 시기에는 근본적으로 이를 저지할 세력이 없었기 때문에 직접 거리낌없이 기술하려 했을 것이다. 어차피 柳芳은 武后가 大惡之人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 표현은 상당히 偏激하였고 객관적이지 못했다.

考異 권10 「(上元) 二年四月, 太子弘薨」條에는

新書本紀云, 己亥, 天后殺皇太子. 新傳云, 后將驕志, 弘奏請數佛旨. 從幸合

璧宮, 遇鳩毒. 唐曆云, 弘仁孝英果, 深爲上所鐘愛. 自升爲太子, 敬禮大臣鴻儒之士, 未嘗居有過之地. 以請嫁二公主, 失愛於天后. 不以壽終. 實錄, 舊傳皆不言弘遇毒. 按李泌對肅宗云, 高宗有八子. 睿宗最幼. 天后所生四子, 自爲行第. 故睿宗爲第四. 長曰孝敬皇帝, 爲太子監國, 仁明孝悌. 天后方圖臨朝, 乃酖殺孝敬, 立雍王爲太子. 新書蓋據此及唐曆也. 按弘之死, 其事難明. 今但云時人以爲天后酖之. 疑以傳疑.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太子 弘이 暴薨되었다는 의문에 대한 考異이다.

新唐書 高宗紀에는 武后가 太子를 죽였음을 명백히 기술하고 있다. 新唐書 孝敬皇帝傳에도 똑같이 太子를 毒殺하였다고 기재하고 있다. 唐曆에도 太子가 蕭淑妃의 두 공주가 出閣할 수 있도록 奏請하였기 때문에 武后의 사랑을 잃게 되어 天年을 향수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피살의 동기를 암시하고 있다. 그러나 高宗實錄과 舊唐書 孝敬皇帝弘傳에는 단지 行幸을 따라 合璧宮에 갔다가 그 곳에서 죽었다고 기재하고 있다.

司馬光은 新唐書는 肅宗에게 「武后가 孝敬皇帝를 酖殺하였다」고 한 李泌의 말과⁴⁾ 唐曆의 기재에 근거하여 기술했다고 하고 있다. 弘의 死因에 대해 지금 명확히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단지 「당시 사람들은 武后가 弘을 죽였다고 생각했다」라고 기재했던 것에 그쳤던 것이다. 司馬光의 판단과 기술 방법은 매우 타당한 것이었다.

梁恒唐의 연구에 의하면⁵⁾ 太子 弘은 武后에 의해 毒殺당했던 것이 아니라 폐결핵으로 죽었다고 한다. 만약 그러하다면 柳芳이 잘못 판단했던 것이므로 武后에게 죄명을 씌울 수는 없다. 명확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마땅히 보류하는 태도를 취해야 하는 만큼 柳芳의 武后에 대한 定罪는 분명 성급한 것이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4) 李繫이 저작한 李泌傳 혹은 鄴侯外傳 및 舊唐書 卷116 承天皇帝俊傳 참조.

5) 梁恒唐, 「太子弘死于肺結核, 歐陽脩冤枉武則天」 (『武則天與乾陵』, 三秦出版社, 1986년) pp. 89-96.

劉知幾가 高宗實錄을 撰述할 때에 勢力家の 압박을 받아 충실히 기술할 수 없었고 舊唐書(國史 130권의 부분)에도 廻護曲筆의 부분이 있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아마 柳芳은 前人の 이러한 결점을 보고 가능한한 사실대로 기술하려고 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상의 3가지 사실로 보면 柳芳의 기술태도에는 치우친 바가 있어 武則天에 대해 공평한 서술과 평가를 내리지 못하였다. 男性 중심의 봉건사회에서 만인 위에 榮登한 武則天에 대해 惡評을 한 것은 부득이한 일이겠지만 이러한 평가를 분명히 기술한 최초의 사서는 柳芳의 唐曆이었다. 柳芳의 武則天에 대한 묘사 중에 표현된 편파적인 태도는 바로 柳芳의 史學家로서의 능력이 이 정도였다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⁶⁾ 이 외에 柳芳이 武則天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철저히 부정적인 태도는 당시 史學界의 潮流와도 유관하다고 생각되지만 이 점은 詳述하지 않는다.⁷⁾

마지막으로 新唐書에 대하여 약간 살펴보기로 한다.

武氏가 宸妃에 오른 사건에 대해 新唐書 高宗紀는 唐曆과 舊唐書 則天紀의 기재를 계승하여 武氏가 宸妃에 올랐다고 하고 있다. 또한 太子 弘의 죽음에 관해서 新唐書의 高宗紀와 孝敬皇帝弘傳은 唐曆과 李襲의 李泌傳을 계승하여 武后가 太子를 죽였다고 하고 있다. 이와 같이 新唐書는 唐曆 중의 편파적 기술을 계승하여 武后의 形象을 悍戾無恥한 여인으로 칭하는 데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쳤다.

4. 唐曆의 評價

唐曆은 柳芳이 20여년의 심혈을 기울여 찬술한 필생의 작품이며 단지

6) 柳芳은 가끔 역사인물과 사건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내리지 못했다. 그는 극히 보수적인 입장에 서서 宗族制의 維持와 九品中正制를 긍정하고 科擧制를 비판하였는데 이에 관해서는 牛致功, 「柳芳及其史學」(史念海 主編, 『唐史論叢』 第二輯, 陝西人民出版社, 1987년, pp. 246-260)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7) 德宗 建中 元年(780) 沈既濟는 武則天을 本紀에 넣어서는 안된다고 논하고 있다. 舊唐書 卷149 沈傳師傳 참조.

開元, 天寶 이후의 역사기재의 錯誤만을 수정하였던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에 따라 唐朝의 역사를 충실히 기술하여 一家之言을 이룬 編年史이다. 비록 당시에는 학자들이 唐曆은 褒貶의 義例를 세우지 않았다 하여 악평하였지만 그 가치는 모두 승인하였으며 宣宗時에는 崔龜從이 續唐曆을 編續하였다.

文獻通考 권193에 인용된 李燾의 말에는

本朝歐陽脩, 宋祁修唐紀志及傳, 司馬光修自治通鑑, 掇取四十卷中事幾盡, 然異聞嘉話尙外遺棄, 芳本書蓋不可少. 祁傳指芳歷不立褒貶義例, 被諸儒訕議, 然祁所贊房杜姚宋等語, 則皆因芳之舊云.

라고 되어 있다. 新唐書와 資治通鑑은 거의 전부 唐曆 중의 기사를 채용하였다. 宋祁에 의해 완성된 房玄齡, 杜如晦, 姚崇, 宋璟 등의 傳贊 역시 柳芳의 唐曆을 채용하였다. 司馬光의 아들 司馬康 역시 通鑑의 편집에 참여한 유력한 인물이었는데 그는 通鑑의 史料에 대해

其在正史外而有以博約之. 楚漢事, 則司馬彪·荀悅·袁宏. 南北朝, 則崔鴻十六國春秋, 蕭方等三十國春秋, 李延壽書, 雖無表志而可觀, 太清記亦時有足採者, 建康實錄猶檜而下無譏焉. 唐以來稗官野史暨夫百家譜錄正集別集墓誌碑碣行狀別傳, 幸多存, 而不敢少忽也. 要是柳芳唐曆爲最可喜.⁸⁾

라고 하고 있다. 즉 唐代史料는 稗官野史, 百家譜錄, 個人文集, 墓誌, 碑碣, 行狀에서 別傳에 이르기까지 많지만 볼 수 있는 자료는 모두 보았고 또한 결코 마음대로 소홀히 보지 않았는데 이들 자료 중 唐曆이 가장 훌륭한 가치를 갖고 있었다는 것이다. 唐曆은 그 중의 武則天에 대한 서술로 보면 주관적이고 적절치 못한 부분이 있지만 歐陽脩와 司馬光 등은 모두 그것이 사료적 측면에서 상당한 가치를 갖고 있는 매우 우수한 史書라고 생각하였다. (金秉駿* 번역)

8) 玉海 卷47 編年, 治平資治通鑑條.

* 서울대학교 대학원 동양사학과 박사과정